

# 흥국생명 - GS칼텍스 운명의 시간

여자프로배구 챔피언결정전 개막... 5전 3승제 격돌 이소영 vs 김연경, 러츠 vs 브루나 대결 "기대대네"

이제는 유니폼에 별을 새길 시간이다.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1위 GS칼텍스와 플레이오프의 승자 흥국생명이 오늘(26일)부터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에서 격돌해 2020-2021시즌 우승팀을 가린다.

흥국생명은 24일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 스코어 3-0으로 완파하고 2승 1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 티켓을 손에 쥐었다.

2005년 프로 출범 후 코로나19 여파로 포스트시즌 없이 조기 종료된 2019-2020시즌을 제외하고 15차례 챔피언결정전에서 가장 많이 우승한 팀은 흥국생명이다.

GS칼텍스는 2007-2008시즌, 2013-2014시즌에 이어 통산 세 번째로 우승에 도전한다. 차상현 GS칼텍스 감독의 바람대로 흥국생명은 플레이오프를 최종전까지 치러 체력 손실을 봤다.

이를 간격으로 벌어지는 챔피언결정전의 1·2·5차전은 GS칼텍스의 홈인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3~4차전은 흥국생명의 안방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치러진다.

'어우흥'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 예상을 깨고 GS칼텍스는 정규리그 직전에 열린 프로배구 컵대회, 정규리그를 모두 제패했다. 이제 챔피언결정전까지 정상을 정복하면 최초로 3관왕(트레블)의 위업을 달성한다.

월드스타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은 확장 시절 폭력과 관련한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첫판에서 기업은행을 따돌려 저력을 뽐냈다. 국의 생활을 접고 11년 만에 흥국생명에 복귀한 김연경은 플레이오프 2차전 블로킹 도중 오른손 엄지를 다쳤지만, 봉대를 감고 출전한 3차전에서 23점을 터뜨려 '역시 김연경'이라는 찬사를 끌어냈다.

GS칼텍스는 체력에서 흥국생명을 앞선다. 특히 레프트가 공수 모두 약했던 IBK기업은행과 달리 GS칼텍스에는 이소영과 강소희라는 국가대표급의 걸출한 레프트가 있다.



24일 열린 여자프로배구 플레이오프 3차전에서 활약하는 흥국생명의 브루나. 연합뉴스

GS칼텍스는 챔피언결정전 직행의 분수령이 된 6라운드 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3-1로 흥국생명을 따돌려 정규리그 1위의 영광을 차지했다.

흥국생명은 플레이오프라는 큰 경기를 치르면서 전반적인 조적력이 살아나 상승세를 탔다. 게다가 브라질 출신의 브루나 모라이스가 한쪽 날개로 존재감을 입증한 점이 반갑다.

국외로 떠나기 전 2008-2009시즌 흥국생명의 챔피언 우승을 이끈 김연경이 12년 만에 다시 챔피언 선봉에 선다는 점에서 흥국생명의 전력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소영과 김연경, 러츠와 브루나가 벌인 자존심 대결이 코로나19시대 두 번째로 열린 프로배구 여자부 레이스의 대미를 장식한다. 연합뉴스

# "즐기는 경기해서 성적 좋아"

임성재 WGC 첫 대회 승리 토머스·디샴보 패배 이변

임성재(23)가 처음 출전한 월드골프 챔피언십(WGC) 델 테크놀로지 대회 플레이(총상금 150만달러)에서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임성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 71)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러셀 헨리(미국)를 1홀 차로 꺾었다.

9번 홀까지 버디 2개를 뽑아내며 3홀 차까지 앞서는 일방적인 경기를 펼친 임성재는 헨리에게 10번, 11번 홀을 내주며 쫓겼지만 18번 홀까지 버티며 추격을 따돌렸다.

임성재는 이로써 16강 진출을 향한 첫 관문을 거뜬하게 넘겼다.

"처음 대회 플레이를 해봤는데 긴장감이 컸고 또 재미있었다"는 임성재는 "남은(조별리그) 두 경기도 차

분히 잘해서 꼭 16강에 올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년 프레지던츠컵에서 3승을 거뒀던 임성재는 "매치 플레이는 마음이 급하지도 않고, 쫓기는 느낌이 많이 없다"면서 "즐기면서 경기해서 매치 플레이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김시우(26)는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1차전을 무승부로 끝냈다. 김시우는 17번 홀까지 1홀 앞섰지만, 플리트우드는 18번 홀(파4) 버디로 무승부를 만들어냈다.

매치 플레이답게 첫날부터 이변이 속출했다. 세계랭킹 2위 저스틴 토머스(미국)는 맷 쿠처(미국)에게 3홀 차 완패를 당했다. '장타왕' 브라이언 디샴보(미국)는 세계랭킹 64위 앙투안 로즈너(프랑스)에게 2홀 차로 졌다.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세계랭킹 66위 이언 폴터(잉글랜드)에게 6홀 차로 대패했다. 연합뉴스



아이언샷을 날린 뒤 공의 궤적을 쫓는 임성재. 연합뉴스



양현종, 설레는 MLB 첫 선발 2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볼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와 텍사스의 시범경기에 첫 선발로 등판한 양현종이 힘찬 투구를 하고 있다. 이날 양현종은 3%이닝 동안 안타 5개를 내주고 2실점 했다. 볼넷 없이 삼진 2개를 속아냈다. 개막전 엔트리 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테스트에서 양현종은 앞선 등판만큼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연합뉴스

## 샌디에이고 김하성 NL신인왕 후보 5위

MLB닷컴 15홈런·15도루 전망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식 데뷔를 앞둔 김하성(26·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5위에 올랐다.

MLB닷컴은 25일(한국시간) 2021 시즌 신인왕 후보를 리그별로 5명씩 선정했다. 김하성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라인업에서 어느 타수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김하성이 타율 0.275/출루율 0.350/장타율 0.450에 15홈런을 칠 것으로 본다"며 "홈런 개수 정도의 도루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 팬그래프닷컴의 전문가 댄 짐보르스키는 김하성이 데뷔 시즌 타율 0.267, 159안타, 22홈런, 103타점, 18도루, 93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여자프로농구 FA 단일리그 역대 최대

배혜운 등 22명 대상자 발표

여자프로농구 2020-2021시즌에 아산 우리은행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끈 김소니아와 용인 삼성생명의 챔피언결정전 우승 주역인 배혜운·윤예빈 등이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온다.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은 25일 2021년 FA 대상자 22명을 발표했다. 데뷔 이후 처음 FA 자격을 획득한 1차 FA 대상자는 김소니아를 비롯해

윤예빈, 진안(BNK) 등 총 8명이다.

FA 계약 기간 종료 후 FA 자격을 재취득한 2차 FA 대상자는 배혜운을 포함해 강이슬(부천 하나원큐), 강아정(KB) 등 14명이다. WKBL에 따르면 FA 대상자 22명은 단일리그 시행 이후로는 역대 가장 많은 수다.

FA 협상은 최대 3차까지 진행된다. 1차 협상은 4월 1일 시작해 15일 마감된다. 2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부터 모든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1차 FA 대상자는 1차 협상 기간에는 원소속 구단, 2차 협상에선 타 구단과 협상이 가능하다. 3차 협상은 1, 2차 FA 대상자 모두 원소속 구단과 협상해야 한다. 연합뉴스

# 2021 태양광 보조사업 설치희망자 예비모집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 단독 주택

- 기존/신축 주택 소유자, 소유예정자
- 설치용량 3kW까지 지원
- '20년 기준 공사비의 50% 지원
- 공동주택 지원가능
- 타운하우스 등 단체설치 특별우대

### 🏢 상가 건물

- 사무실/식당/펜션/공장/병원/학원
- 설치용량 50kW까지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지원사업 적용
- 건물 용도별 맞춤형 컨설팅/설계/시공
- 공사비의 약 50~55% 지원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문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